

□ UR 협상의 영향과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대비
전략 세미나 개최

우리 협의회는 4월 22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UR 대비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57개 회원대학의 기획실·처장들이 참석하여 UR 협상의 경과와 배경, 향후 교육시장개방의 전망과 영향, 개방추세에 따른 대학교육의 발전전략과 대비책 등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자들은 교육시장개방의 효과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국 대학교육의 특수성과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대책 논의에 있어서 대단히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비관론을 전개할 시간은 이미 지났으며, 수세적 방어가 아닌 공격적 대응자세로 대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학간 공동협력과 연구로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주제발표 I : 교육시장개방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한준상, 연세대 교육학과)

토론 : 이영수(교수신문 발행인, 경기대 교육학과), 김우택(한림대 경제학과)

△ 주제발표 II : 교육개방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개혁방안(이현청,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토론 : 김영식(교육부 대학행정과장), 최운실(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부장)

□ 대교협 제 4 대 사무
총장 구병림 박사 취임

우리 협의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구병림 박사가 선임되었다. 4월 12일 열린 68차 이사회에서는 3대 사무총장인 구병림 박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논의 끝에 대교협 정관 22조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그동안 대학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와 실적을 인정하여 제 4 대 사무총장으로 구병림 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구병림 박사는 5월 10일 교육부 장관의 승인과 김종운 대교협 회장(서울대 총장)의 임명으로 대교협 제 4 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

□ 대학별 입학고사 실시
대책에 관한 워크숍 개최

우리 협의회는 3월 31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대학별고사 실시대책에 관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95학년도에 대학별고사를 치르거나 이후 치를 예정으로 있는 회원대학 교무처장들이 참석하여 94학년도에 대학별고사

를 실시한 대학의 임시책임자들과 실시경과와 평가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I : 95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방향(이태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 주제발표 II : 대학별고사의 기능과 교육적 영향 고찰(이현청,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 사례발표 : 서울대(백충현 교무처장), 연세대(김준석 입학관리처장), 성균관대(고상룡 교무처장)

□ 연구보고서 발간

◎ 대학관계법 국제비교 연구
교육시장개방에 따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교육여건·교육내용 등 제반 대학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나 통제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관계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 연구는 외국의 대학제도를 비교·검토하되, 실제 법령상 대학은 어떤 지위를 가지며 어떤 관리운영제도를 취하고 있고, 대학내 조직의 법적 관계는 어떠한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자 : 김형근, 조석훈(이상 대교협)